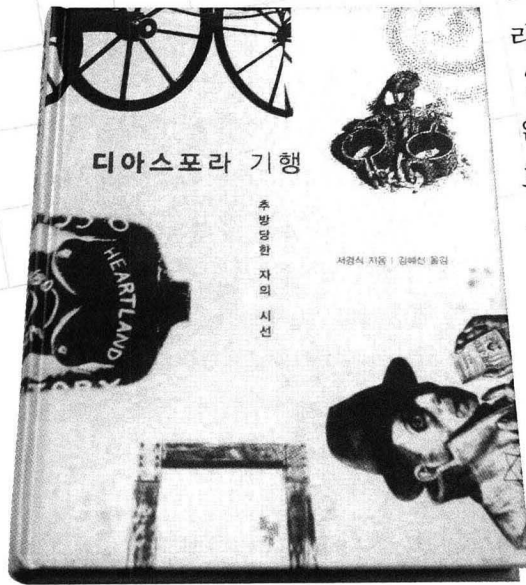


서경식의 《다스포라 기행》

상처의 네트워크로 창조해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글_ 정여울



《디아스포라 기행》
서경식 지음 | 김혜신 옮김
| 돌베개 | 231쪽 | 값 12,000원

프랑스나 독일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보내고 미국이나 영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후, 20대에는 세계일주를 하고, 30대부터는 1년에 한 번씩 가고 싶은 나라를 바꾸어가며 지내는 것. 어린 시절, 남에게 차마 밝힐 수 없는 내 삶의 '로망' 이었다. 학창시절부터 내심 질투했던 친구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부모님을 따라 여러 나라를 돌며 '자연스럽게' 최소한 4개국어 정도는 너끈히 해내며 '앞으로도 한국에 불박일 이유가 없는' 친구들이었다. 무의식 깊숙이 뿌리를 내린 '다국적의 삶' 에 대한 동경은 다양한 탈민족주의 이론과 기묘한 커플을 이루어 새로운 낭만적 판타지를 만들어냈다. 그래, 내셔널리즘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차라리 정해진 국적 없이 다양한 나라를 윈 없이 유람하며 살아보는 거야. 애국심이 생길 만 하면 다른 나라로 훌쩍 떠버리는 거지. 이런 황당무계한 몽상은 물론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장난스런 몽상에 그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몽상 속에서 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바로 '다국적=무국적' 이라는 달콤한 오해였다. 이러한 삶에 대한 동경은 여러 개의 정체성을 다채롭게 향유하고자 하는 '다국적' 의 욕망이었지 뿌리도 피붙이도 없이 살아가는 '무국적' 의 삶을 견딜 수 있는 용기는 아니었던 것이다.

《디아스포라 기행》은 그런 내 오랜 무지와 오해를 아프게 들추어내는 책이었다. 이 책의 저자 서경식은 디아스포라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재정의한다. “대부분 폭력적으로 자기가 속해 있던 공동체로부터 이산을 강요당한 사람들 및 그들의 후손”, 즉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토지·언어·문화를 공유하는 공동체”의 보호와 관심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러나 이러한 언어적 정의는 디아스포라를 이해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교적 '명료한' 의미의 디아스포라에 속하는 서경식 자신조차도, 제일조선인 2세이지만, 국적은 '한국'이며, 민족적으로는 '조선인' 이지만 국민으로서 '한국인' 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물이 '참, 복잡하다' 는 것이 디아스포라의 유일한 공통점일지도 모른다. 디아스포라의 실감은 개념적 규정보다는 그들이 느끼는 구체적 고통과 상처에서 찾는 편이 나올 것 같다.

예를 들면 이런 것. “제일조선인의 대다수가 일본 식민지배의 결과, 의도하지 않은 채 이 나라에서 태어났다. 때문에 이 나라의 언어밖에 모르고, 여기밖에 집이 없고, 여기밖에 직장이 없고, 여기밖에 친구도 아는 사람도 없다. 다시 말하면, 삶의 기반이 여기 외에는 없는 것이다. 어떤 때는 완곡하고 부드러운 말로,

● 이 글을 쓴 정여울은

'미디어 헌터' 로(공간), 《씨네21》, 《출판저널》, 《GQ》 등의 잡지에 책과 미디어에 대한 리뷰를 써왔다. 2006년 현재 한신대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아가씨, 대중문화의 숲에서 희망을 보다》 등이 있다

어떤 때는 거친 목소리로 싫으면 나가라고 하는 말을 들어가면서, 그래도 여기밖에는 살 곳이 없는 것이다.”(30쪽)

디아스포라의 속성은 ‘국적의 유무’로 결정된다기보다는 부비트랩처럼 곳곳에 놓여 있는 ‘정체성의 닻’이 나타날 때마다, 아니 그것이 나타날까봐 막연한 항시적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실존적 고통이다. 외국에 나갔을 때 가장 흔히 받는 질문, “Where are you from?”이라는 질문에 부딪혔을 때. 또는 선거철에 ‘누구를 찍을 거냐?’라는 닳고 닳은 질문 앞에서, 참정권 자체가 없는 디아스포라는 말문이 막힌다. 또는 “일본 국적 없이 의사는 될 수 있지만 국가 공무원은 될 수 없다는 단순한 사실” 앞에서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은 명료하게 드러난다. 취학과 취업과 결혼 등등,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모든 순간에, 자신이 매순간 디아스포라임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그 사람에게 나의 정체성을 설명해야 한다는 압박 앞에서. 내 자식에게 디아스포라의 삶을 물려줘야 한다는 죄책감 앞에서. ‘나는 돌아갈 곳이 없다’는 디아스포라의 감각은 투명하게 이빨을 드러낸다.

무엇보다 디아스포라에게는 ‘이제 여기가 삶의 끝이구나’ 싶을 때, “죽음을 향해 한 발자국, 몸을 내밀려 할 때, 뒷머리를 잡아채 이편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죽으면 가까운 이들에게 죄송하다, 사랑하는 사람이 가없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가족’, ‘고향’, ‘모교’, ‘우리 회사’, ‘우리 마을’ 등을 거쳐 ‘국가’나 ‘국민’에 결합된다. 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 ‘국민’이라는 추상적 관념으로 회수되고 마는가.”(55쪽)

인간이란 존재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기 어렵다. ‘오롯이 나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죽지 않고 살아갈 이유를 찾기란 어렵다. 특히 삶이 막다른 골목이나 돌이킬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몰릴 때에는 더더욱. 내셔널리즘의 토대도 결국 이러한 개개인의 존재 자체의 불안에 호소하는 셈이다. 결국 디아스포라의 문제는 ‘디아스포라=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우연성과 무상성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존재자체의 불안, ‘우리들’ 자신의 문제였던 것이다.

“사람은 우연히 태어나 우연히 죽는 것이다. 혼자서 살고 혼자서 죽는다, 죽은 뒤는 무(無)다.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내셔널리즘에서 오는 현기증을 극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달려 있다.”(62쪽)

그러나 디아스포라가 처한 또 다른 위험은 ‘결코 부여 받은 적이 없는 정체성’을 찾기 위해 자신의 상처를 절대 화시킬지도 모른다는 위험이다. ‘정체성이 없다 / 불분명하다’는 사실 자체를 또 다른 정체성의 근거로 삼을 위험. 디아스포라들의 ‘상처의 공동체’에 자신의 정체성을 가둬둘 위험이다. 이렇게 되면 주체가 상처 속에 함몰되어, 상처의 흔적 자체가 정치적 올바름을 구성하고, 새로운 정체성의 논리는 또 다른 신화성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서경식은 더욱 저돌적으로, 자신의 상처보다는 타인 ‘들’의 상처에 돌진함으로써 이 위험을 극복한다. 그는 상처 뒤에 숨어서 상처를 미학화 시키지 않는다.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깊이 훑어오는 상처 속으로, 오히려 더 깊숙이 상처를 헤집고 들어가 스스로를 겪지 않아도 좋을 타인의 상처 속으로 투신한다. 그는 자신의 실존을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의 상처의 바다 속으로 조여 넣는다. 그리하여 상처의 세포로 이루어진, 공포와 죽음의 흔적으로 모자이크된 삶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는 자신이 부여 받은 정체성에 머물지 않고, 다수적(major)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한사코 자신보다 더 아픈 디아스포라의 흔적을 찾아 헤맨다.

우리는 흔히 정체성이란 주로 단단한 경계(인종, 국경, 국어 등등)나 견고한 토대(자본, 교육, 제도, 미디어 등)위에 터를 닦는 것이라 배운다. 그러나 지구 곳곳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은 추방당했다는 사실, 갈 곳이 없다는 상황, 모국어나 토착문화를 잃어버린 상태로 그들의 정체성을 구성한다. 즉 디아스포라들은 무언가 ‘존재하는’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가 ‘비어있는’ 상태에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의 집을 짓고 있다. 그리하여 이 집은 비록 단단한 정체성의 벽돌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도저히 규정할 수 없는 어떤 ‘상실’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이 디아스포라의 ‘무(無)의 정체성 / 텅 빈 정체성’은 ‘유(有)의 정체성 / 충만한 정체성’보다 오히려 근절하기 어렵다. 수많은 서경식 ‘들’의 고향은 한국도 일본도 아니라 ‘디아스포라의 상처’이며 뿌리도 잔가지도 구분할 수 없이 전세계 곳곳에 뻗어있는 상처의 네트워크야말로 그들이 서식하는 ‘존재의 집’, 아니 그들이 ‘창조’해낸 새로운 정체성이 아닐까. ^{***}